

지역 소식



정읍시농업기술센터, 핵과류 자두곰보바이러스 일제조사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핵과류(살구, 매실, 자두, 복숭아 등)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자두곰보바이러스' 일제조사와 예방에 들어갔다. 176농가, 86ha이다.

자두곰보바이러스는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이다. 벗나무속 식물인 복숭아와 살구, 자두, 매실 등에서 발생한다.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된 나무로부터 최대 60m 까지 조사한 후 감염된 경우는 개서 매몰해야 한다. 또 발병한 경우 최소 3년 동안 핵과류를 재배하지 못한다.

감염되면 별도 치료제가 없어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무병 접목묘를 사용하고 진딧물을 방제해야 하며 전정에 사용한 가위와 톱 등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기술센터는 특히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자원개발과(과수팀, ☎539-6323) 또는 지역농업인상담소에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성호도서관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고창군 성호도서관이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를 내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어린이들이 인권도서를 통해 다양한 인권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이 매년 전국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순회 전시회로 어린이 인권도서 170여종을 열람할 수 있다.

전시회는 유아와 아동, 부모님이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장애, 다양성, 평화, 인물, 북한인권, 동물권리 등 다양한 주제의 도서들로 구성됐다.

또한 관련 문화행사로 '날라도 괜찮아'도 함께 진행돼 외모, 나이, 피부색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동화를 읽어보고, 물의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시온 머그컵을 만들어보면서 다양성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문화행사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며 참석자는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권에 대해 알고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공모사업

부안군 변산농협 최종 선정

올해부터 2년동안 10억 원 예산 확보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변산농협이 양과품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7년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이 확보됐다.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 조절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전국 7개 경영체에서 신청해 서면심사, 현지점검 및 발표평가를 거쳐 2개 경영체(전북 1개소, 제주 1개소)가 선정됐으며 전북지역은 변산농협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변산농협은 올해부터 2년 동안 10억 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예산을 확보해 양과 공동경영체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1년차인 올해는 공동경영체 조직을 위한 교육과 농기계 구입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드론방제기 및 재배

과정에 필요한 기계류 구입 등을 지원한다.

부안해풍안파는 청정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병충해에 강하고 육질이 단단해 저장기간이 오래가며 그 맛이 매우면서도 동시에 단맛이 나는 특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서 지역농가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노동력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 장비 및 기계를 보유함으로써 부안군 양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내장산위터파크 음악분수 '인기'

10월까지 운영

내장산국립공원 초입 내장산위터파크 음악분수(이하 음악분수)가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아름다운 선율과 어우러진 시원하고 화려한 물줄기가 색다른 볼거리를 사랑받고 있는 것. 특히 최근 이 어지고 있는 고온에 지친 방문객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면서 최근 찾는 이들도 부쩍 늘었다.

음악분수는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평일 매일 저녁 2회(8시, 9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4회(오후 2시, 5시, 8시, 9시)가 동된다.

아간 음악분수 공연 시에는 화려한 조명과 위터스크린을 이용한 DVD 동영상과 레이져쇼 등 다양한 아름다운 음악분수 쇼를 선보이고 있다.

단 매주 월요일은 분수 시설물 관



경 정비를 위해 가동하지 않는다. 또 비가 내리거나 강풍이 있는 날도 상황에 따라 가동하지 않는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위터파크 내 야외공연장은 다양한 공연 외에도 인라인스케이팅과 보드 자전거 등을 타는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분수 공연을 감상하면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동에 앞서 수증기를 교체하고 공연장 진입로를 포장했다. 또한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광장 내에 그늘막을 조성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경찰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점검·교육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박현수)는 15일 제 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찰·노인보호전문기관·고창군청 합동으로 노인요양시설 9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방문하여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및 노인학대 점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창경찰청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와 노인복지시설·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노인학대 예방·인식 전환

을 위한 방문 캠페인을 실시하고, 은폐하기 쉬운 노인학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 수집과 노인학대의 경우 사회 전반적 관심 제고로 신고 의무자들도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다수이므로 학대 사례 발견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요양기관 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대상으로 노인 학대 인지 방법 및 신고 요령 등 순차적으로 교육시켜 신고 의

무자 등이 학대 사례를 접하고도 신고 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 방침이다.

또한, 노인학대 사건 전수합심조사를 통해 사건 처리의 적정성, 재발 가능성 및 사후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전문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통합순무선 개체를 통해 다각적 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공무원 아이디어 왕 선발대회 진행

고창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창군(군수 박우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7 고창군 아이디어 왕 선발대회에 북돋워 주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되고 있다.

군은 군정발전에 대한 제안제도를 보완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채택 제안에 대해 시상금을 기존 최고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기점을 제공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 노력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특히, 올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창군 아이디어 왕 선발대회'를 개최해 연중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상·하반기 시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평소에도 군정발전 방안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실무검토 단계인 제안심사 실무위원회가 개최돼 2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68건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창의성,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후 채택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작고 사소한 생각이라도 고창군의 새로운 미래와 부가치를 만들어내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며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정발전 정책제안 공모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고창군 구성원 누구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복한 상상, 북돋워 주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함께 실현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정읍시보건소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시 보건소는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냉방기와 수계시설 사용 증가로 레지오넬라균 환자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15일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할 구역 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냉방탑수를 비롯한 샤워기, 그리고 화장실의 수도꼭지(냉·온수)와 대형 목욕탕 내 냉·온수 등이다.

보건소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에 검사를 의뢰해 균이 검출될 경우

에는 검출량에 따라 청소와 소독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레지오넬라균은 냉각탑수와 샤워기, 수도꼭지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는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p)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발병하는 제 3군 법정 감염병이다.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는다. 증상은 전신 권태감과 근육통, 두통, 갑작스런 오한과 발열이 생기기 흔히 기침, 복통, 설사를 동반한다.

특히 만성폐질환자나 흡연자, 면역저하자는 고위험군으로,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순항'

마을안길 확·포장·하수도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편의를 높여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28개소를 선정해 현지답사 후 지난 2월 말 실시계획을 완료했으며 3월에 사업을 조기 시행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컸던 마을 하수도과 인강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개소를 완료했다.

사업 추진 해당 마을의 생활환경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마을안길이 노후화되고 협소해 차량과 주민통행 시에 불편이 많았다.

군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마을안길을 확·포장하고, 노후화된 마을 하수도를 정비해 생활오수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면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추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우정 군수는 "나후된 환경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고 지내온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고른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경관개선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럽게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o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